

“80년 5·18 시위 참가는 헌정질서 수호 정당행위”

광주지법, 29년만에 50대 ‘무죄’ 선고

“벌써 30년이 다되어가지만 ‘범죄자’라는 명예를 벗겨줘 기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관련자들이 모두 명예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9년 만에 ‘범죄자’의 누명을 벗게 됐다. 주인공은 1980년을 전후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정철(5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로, 1년6개월간의 재심소송 끝에 명예를 되찾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3일 5·18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을 위반죄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두환 등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정씨는 5·18 직전인 1980년 4월 광주시 서구 유덕동 자신의 집에서 ‘씨알밭’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이 권력에 농락당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60부를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반정부 유인물 7천여부를 제작·배포했다.

정씨는 또 1980년 10월에도 ‘광주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것을 비롯, 이듬해 5월까지 ‘5월 시국선언문’, ‘광주시민 의거의 진상’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다 집

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981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듬해 2월 형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981년 7월부터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정씨는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2007년 4월 재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이들과 역사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남고 싶었다”며 “보상만은 5·18문제가 모두 마무리된 것처럼 여기는 주변의 시각이 너무나 안타깝게워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단체로 재심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 5·18 관련 재심소송에 나선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변호인 조차 선임하지 못했지만 ‘범죄자’라는 명예를 벗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노인들 “勞人 되고 싶어” 13일 광주시 서구 능성동 광주상록회관에서 열린 ‘2009 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보고회’에 참석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기초질서계도, 물품제조,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프로젝트)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5천245명을 모집키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택시요금 내일부터 22% 인상

기본요금 2,300원 전남도는 13일 “승객 감소와 운전자 임금, 유가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택시요금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돼 요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천800원에서 2천300원으로 22.51% 오르고 거리·시간 요금도 현재 173m 41초당 100원에서 164m 39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려한 휴가’ 세트장 11월 철거

유지비 부담 ... 5·18 30주년 영화 촬영 후

영화 ‘화려한 휴가’의 촬영 주무대였던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세트장이 3년 만에 철거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씨아더스FNH는 “오는 5~6월 세트장 보수 공사를 한 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영화’를 촬영하고 11월께 완전 철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부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해 세트장을 철거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학부 건물 부지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트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매달 60여만 원에 달하는 전기료와 200여만 원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잠정 폐쇄됐지만, ‘5·18 테마파크’ 조성 등 재 활용 방안이 각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42분 달돋이 21시 26분 달질 09시 39분

군고구마 굽는 소리
흐리고 아침에 가끔 눈이 내린 후 그쳤다가 다시 밤에 눈이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가끔 눈	-3/2℃
목포	흐리고 가끔 눈	-2/2℃
여수	구름 조금	-2/3℃
완도	구름 많고 한때 눈	-1/3℃
구례	흐리고 가끔 눈	-5/2℃
해남	구름 많고 가끔 눈	-3/4℃
장흥	구름 많고 가끔 눈	-3/4℃
고흥	구름 조금	-3/4℃
순천	구름 조금	-4/3℃
영광	흐리고 눈	-4/0℃
진도	구름 많고 가끔 눈	-1/3℃
전주	흐리고 한때 눈	-4/1℃
남원	흐리고 한때 눈	-7/1℃
옥산도	구름 많고 한때 눈	0/3℃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3.0m	목포 04:08	09:2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16:46	21:56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3.0m	11:24	04:5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4.0m	23:37	17: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날씨						
최저/최고	-7/3	-5/6	-3/7	0/7	-2/6	-1/8

전남 서해 불법어업 확 줄었다

목포해경 적발, 2006년 2,745건 → 2007년 929건 → 2008년 472건

전남 서해 상에서의 불법어업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수산사범은 2006년 2천745건에 달했지만 2007년 929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472건으로 또 다시 절반가량 줄었다.

특히 한때 서해에서 기승을 부렸던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소형기선 저인망(일명 고대구리) 어업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는 어선 감축 사업과 고유가에 따른 출어포기, 불법 어업 척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어민들의 준법 의식 향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전남 섬 지역 설 연휴 여객선 증편 운행

설 연휴 기간에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항이 증편된다.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3일부터 27일 동안 완도와 목포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34개 항로 가운데 완도~청산 등 3개 항로에 여객선 3척이 추가로 증편해 운항한다.

여수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35개 항로 가운데 6개 항로에 9척 132회가 증편 운항하며 목포~홍도 등 기존 16개 항로에는 여객선 31척이 672회 오갈 예정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광양제철초 국제 청소년 수학경시대회 4연패

11개 국서 50만명 참가
재학생 12명 전원 입상

광양제철초등학교가 국제청소년 수학경시대회에서 4연패의 쾌거를 이뤘다.

13일 광양제철초교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학교에서 열린 ‘2009 국제청소년 수학경시대회’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한 재학생 12명 전원이 입상해 초등부분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이 학교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에도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다.

영예의 주인공은 대상을 받은 홍길술군과 금상의 서해민, 유지훈(이상 4년)군, 노치윤, 전정민, 이희구(이상 3년)군, 은상을 수상한 구도성(5년)군 등이다.

또 설재현, 문희근, 김진수(이상 6년)군은 동상을, 박지환 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학교 박창훈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박보영 교장은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학영재반 운영과 교사들의 열정 및 탄탄한 교수법과 어우러진 학생들의 높은 학습 의욕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 초·중등생 50만 명이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9만 6천 명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으며, 한국에선 총 82명이 참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경찰서에 공익 배치 전·의경 공백 메워

다음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2천300여명의 공익요원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2월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광주의 전·의경 부족 인력 90명 중 63명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차장 무료이용
국내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탐방** 상환합니다 www.kmbc.or.kr
"기초의 때까지 상공과 차원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光州MBC 문화탐방 光州/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